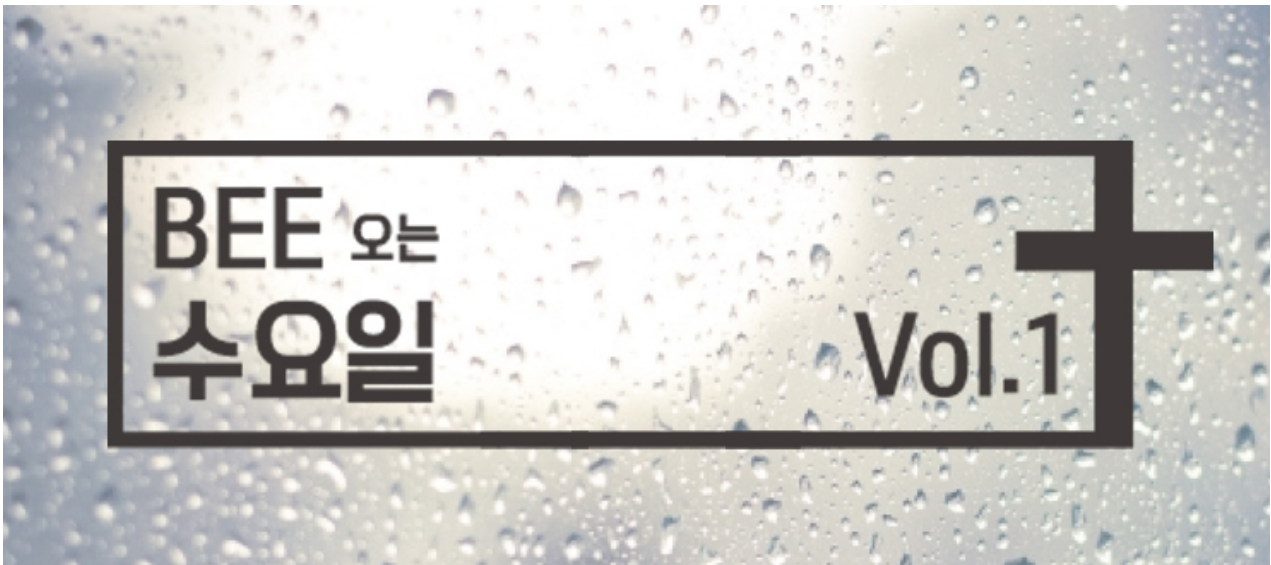




열세번째 이야기

그의 소원

그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약간 묘했습니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받은 충만한 은혜에 비하면 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현실 속의 인물이라고 하기엔 그는 너무 드라마틱했습니다. 잘생기고 똑똑한데다 언변 또한 화려해서 만든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룬 성공의 규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성공의 과정 때문에 그랬고, 그가 자랑하고 그가 드러내는 이야기가 기계적이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한 분께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라는 동사와 ‘산다’는 동사를 이토록 완벽하게 통합해 현실로 살아낸 사람을 저는 이전에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그건 제 잘못입니다. 그 동안 제가 목격해온 비현실적인 인물들은, 고작 비현실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비현실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대충 두 부류였으니까요. 쯤) 그는 말씀도 남달랐습니다.



이전에 제가 들은 다른 은혜로운 설교들은 깊은 통찰과 묵상을 통한 ‘깨달음’의 열매였습니다. 그의 나눔은 죄다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보고, 만나고, 느낀 하나님을 ‘증인’ 자격으로 전했습니다. 것처럼 강력한 흡인력을 뿜어내는 눈빛도 오랜만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다, 그가 “지금 가자” 하면, 어디로 가는 지 묻지도 않고, “가시죠”하고 바로 따라 나설 것만 같았습니다. ‘BEE 오는 수요일’ 열세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 보나콤의 ‘건축담당’ 강동진 목사님입니다. ^^

1997년 말. 그가 온누리 교회를 떠날 당시 고(故)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환송하셨다 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 땅 파기도 힘드니 땅이 녹을 때까지만 있다 가라 하는 데도, 저 얼어붙은 땅을 향해 가겠다고 하네요.” 그가 하 목사님의 제안을 ‘거부’한 건 여럿됩니다. 그에게 농사 지을 땅이라도 마련해 줄까 물으셨으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 수확물을 교회 구내식당에서 구매하도록 해줄까 하는 제안에도 그는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모든 도움의 손길에 왜 “No”라고 답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고 시작하면, 처음엔 쉬울지 몰라도,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사례가 되거나 길이 되지 않을 거 같**



았어요. 돈 없이도, 어떤 도움 없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도, 이렇게 되더라 말 할 수 있어야 진짜 증거가 될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온누리 교회를 통해 전혀 ‘도움’ 받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낯선 곳에 내려와 공동체를 꾸리려는 그를 “이상한 사람 아니냐”며 짚어보는 이들에게 ‘온누리교회 부목사 출신’이라는 이력은 신원보증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지리산 밑자락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그가 가지고 있던 ‘큰 교회’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말끔히 씻어내게 된 것도 온누리 교회가 전해준 선물이었습니다. 온누리 교회 부목사 4년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촌놈 목사’의 보는 지경이 넓어진 겁니다.

‘맨땅에 헤딩’이라는 고전적 기치를 내걸고 호기롭게 이곳 보은에 도착했을 때, 그의 수중엔 퇴직금 정산 후 남은 10만 3천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 살며, 일행 두 명과 농사 지어 첫해 번 돈은 ‘거금’ 150만원이었습니다. 참 가난했습니다. 그후 본격적인 공동체 생활을 다짐하며, 처음 한 일은 집짓기. 그 또한 책으로 배웠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 때 나오는 폐목을 받아서, 못을 빼고 집을 짓는데, 동네 어른신께서 한 마디 던지셨습니다. **“뭐여 이거, 축사 아녀?”** 곧이어 **“축은지심의 마을 할머니들께서 부침개를 부쳐다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였다는 게 선교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었어요. 가난한 곳, 없는 곳이었지만, 친구를 사귀게 해주시고, 이웃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돈 없이 지어서 그런지, 집 하나하나에 사연이 있었습



니다. 마을을 둘러 보며 얘기를 나누던 그가 손을 뻗어 멀리 있는 2층 주택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집을 지을 때, 저는 교환교수로 캐나다에 간 아내를 외조하기 위해 이곳에 없었습니다. 그때, 공동체에서 집 짓느라 애들 교육 보험, 암 보험 해약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돈도 다 떨어져서 결혼 패물도 다 팔았습니다, 애들 돌반지까지 다 팔아서 지은 집이에요, 저 집이...” 순간, 그 특유의 활짝 웃음이 흐뭇하게 입가를 스쳐갔습니다. 동시에 조용히 차오르던 뜨거운 눈물이 그의 두 눈에서 주룩룩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 마을과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극적인 계기를 맞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댐 건설 계획으로 인해 마을이 수몰 위기에 처했다며,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해 온 겁니다. 예산도 이미 책정됐고, 집행만 남아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목사님과 공동체가 힘을 모아 법정 투쟁에 나섰고, 마을을 지켜냈습니다. 처음 이주 당시 전국에서 가장 가

난했던 충북 보은군 대원리는 수년에 걸쳐 그린빌리지 계획 등 각종 마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총 40억이 넘는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았고, 보란 듯이 전국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살기 좋은 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혼 직전 까지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맨 마지막이 보았던 환상,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돌아오게 되어, 거기서 흘러나온 물이 흐르는 곳에 꽃이 피듯이...팻말이나 간판 하나 없는 이 마을이 전 세계로 소문나게 하시면서, 지금은 1년에 4000~5000명이 방문합니다. 전 세계 50여개국 현지 사역자, 목회자들에게 이 마을의 각종 사례들이 자립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주 당시 전국에서 가장 교회가 적었던 이 곳이 지금은 주민의 절반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살아가십니다. 우리 마을이 꽃이 전혀 없던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온갖 꽃이 사계절 핍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But. 그는 지금 이곳을 떠날 채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속 있으면, 말로 다 우려 먹겠드라고요. (웃음) 5년 전부터 두번째 공동체를 개척하자고 설득했습니다. 사실 이 공동체의 대표를 제가 아닙니다. 저는 건축 담당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면 엄청난 카리스마를 갖게 마련인데, 행정적 리더까지 되면 안 좋다 생각했습니다.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대표를 맡으십시오,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전원 합의를 통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제가 대표를 맡을 이유도 없고, 모두가 소외 되지도 않고..” 그렇게 설득한 끝에 2년 전에 합의가 되어, 경북 의성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4만3000평 산을 30년 장기임대하여 작년에 3000주, 올해 2500주의 헛개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학교를 세운다는 야심찬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썬데이 처치로는 안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전인적인 삶을 사는 아이들로 가르치는 거, 의식주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교육이 원래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식주, 그 어느 것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집 짓고, 농사 짓는 거, 정말 혼자 못합니다. 혼자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물을 내리시지 않으면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완벽한’ 그에게 아직 못이룬 소원이 있는지 끝으로 물었습니다. “순교요.” 그는 또 다시 씨익 웃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짝 끼쳤습니다

(글: 최승호, 사진: 조정문, 편집: 최지영)

강동진 목사님은...

1965년 경남 진주생. 촌에서 농사짓고 건축하는 목사, 장신대 졸업. 온누리부교역자 출신. 현 보나팜 가족. 부인은 정미진, 딸은 강유은, 강희원.



인터뷰 후기 by 최승호

1. 두 번의 인터뷰를 하고 글까지 내놓고, 이런 내용으로 후기를 또 쓰는 건 몹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미천한 글쓴이의 체면을 차리는 것 보다 귀한 일이다 싶어 부득불 첨언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글은 강 목사님의 삶을 담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간혹은 글이 삶을 능가하곤 합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그의 삶이 제 글을 월등히 앞선 경우임을 재차 밝힙니다. 그를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그를 직접 만나 그의 하나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를 만나는 것 보다 그를 더 잘 알고 싶으시다면, 그와 같이 농사를 지으며 그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시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가 나눠준 멋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모두 담아낼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맨땅이던 그의 터전을 참으로 근사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아참, 그의 페이스북에 실린 그의 결혼 이야기, 꼭 일독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 그와의 인터뷰를 마치면서, 그와 같이 일할 수 있다면~ 이라는 상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너무 듬직할 것 같았고, 너무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그런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을 속물이라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수확해낸 지금의 열매가 탐스러웠던 겁니다. 그 열매들을 위해 그가 감내해야 했고, 버텨내야 했던 광야의 시간들 마저 감동적인 드라마로서 소비하며 무임승차 하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따라쟁이들은 지금의 저 처럼, 그저 열매만 보고 단숨에 결제하려 덤뵙니다. 세상에 없던 길을 만들어 가는 모든 개척자들은 나무가 처음 씨 뿌려질 때를 상상하고, 그 나무가 뿌리내리고 열매 맺기 까지의 길고 힘든 과정을 담담히 바라볼 줄 압니다. 보이지 않는 작업과 보이지 않는 시간을 묵상하며,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에게 그 열매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구촌 곳곳에서 남들이 가지 않은 좁은 길을 선택하고, 고독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제2의 보나콤을 살아내고 있는 이름없는 예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직 열매 맺지 못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알아보지 못할 저를 반성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믿음으로 사는(Buy & Live) 것임을 진하게 배웠습니다.

BEE 소식

1. 7월 9일 토요일도모임은 All&One으로 모입니다. 하나님이 BEE에 주신 사명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각오를 다집니다

2. 권태남/김미연 선교사 가정의 파송식이 All&One 시간에 있습니다.